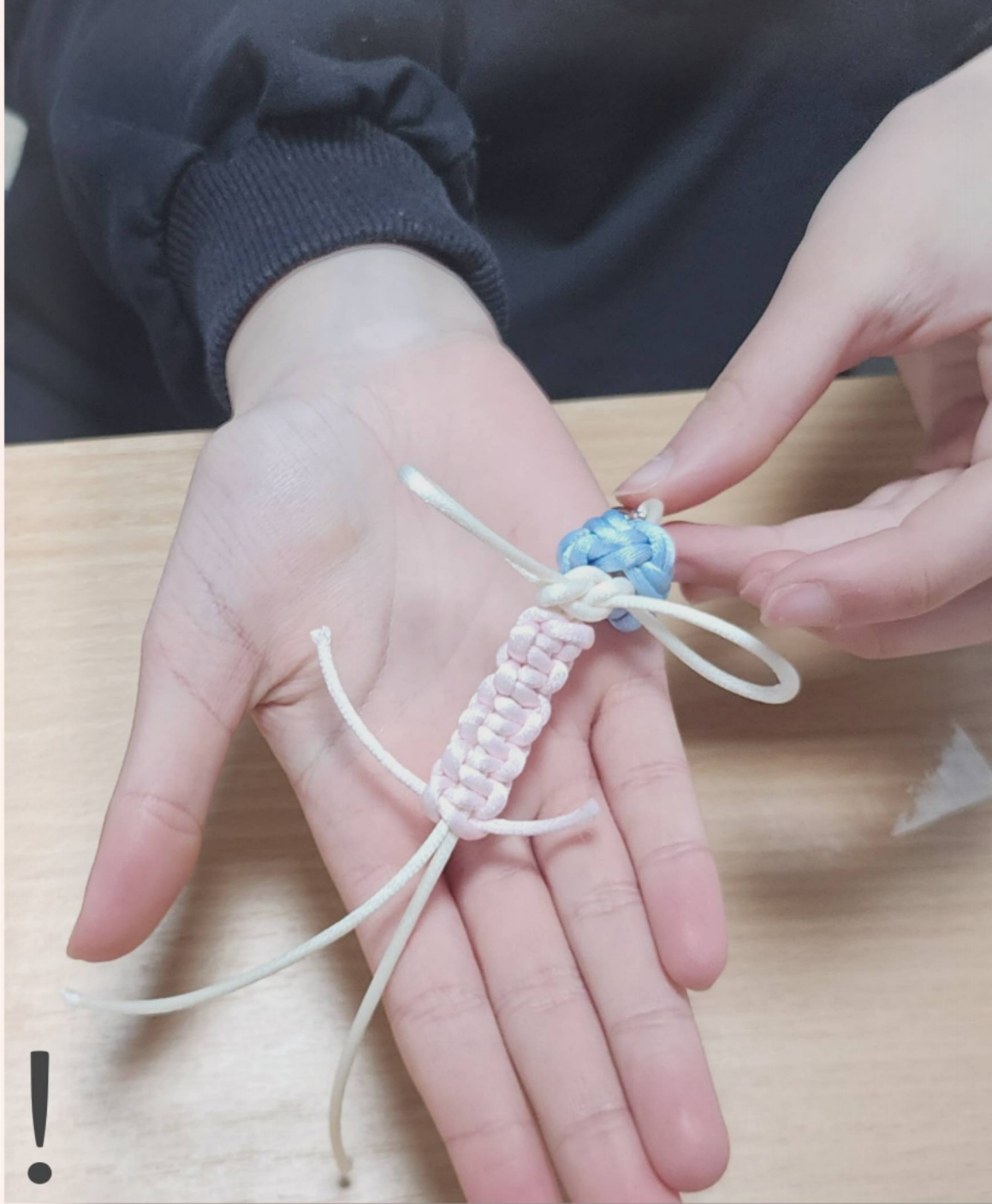


2024년 4월



빠चे! 몰도바

열아홉 번째 선교 이야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시편 37:11)

황진우. 박성은 선교사 (황윤.황린)



1. Pace! ('빠체'는 '평안'이라는 의미의 루마니아어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

저희 가정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3월에 몰도바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데,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과 동역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동역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때까지, 끝까지 몰도바에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몰도바 침례교회 담임이자 신학교 교수인 목사님과 가끔 교제를 합니다.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온유함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이 평탄한 것은 아마도 그의 온유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이 온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시편 37편)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마 5:5)이라고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도 받고, 평안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따뜻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땅을 축복으로 받고, 마음의 평안까지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신 교수님께서 '온유'의 원어적 의미에는 '겸손' 또는 '고개 숙임'의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사람들 앞에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이 땅을 축복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누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시 37:7), 하나님을 바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시 37:34)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의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내 안의 어떠한 문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누리 수 있는 것입니다.

몰도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초임 선교사로서는 조금 늦은 나이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충분하지 않은 재정 상태로, 청소년기의 두 자녀를 데리고, 유럽의 최빈국이라는 몰도바에 도착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모든 것을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 수 있었습니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니다. 몰도바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 안에 있었기에, 저희는 몰도바라는 축복의 땅을 받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니다. 문제들로 인한 불안이나 염려 대신, 약속으로 인한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저희는 만나는 몰도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었습니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밟는 곳은 축복의 땅이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께서도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묵묵히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견뎌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께서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안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빠체!



2. 지금 이곳

몰도바의 늦겨울 날씨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며칠은 구름으로 인해 해가 없다가, 며칠은 비나 눈이 옵니다. 습한 겨울 바람이 세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떨어지더니, 갑자기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후 이상 현상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몰도바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월과 4월은 겨우내 얼었던 도로가 녹으면서 아스팔트가 깨지거나 구멍이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은 더 힘들어지는데, 10월부터 시작된 긴 겨울이 끝난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지금까지 동방정교회가 국교처럼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동방정교회는 개신교회보다는 로마가톨릭교회와 더 가까워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중대한 신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나 동성애 반대 등의 입장은 저희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몰도바는 낙태나 동성애 등이 신앙적인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종교가 없는 데다가, 유럽의 문화가 더 많이 유입되면서 이런 신앙적 전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성애 단체들이 점점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동성애 단체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만 본다면, 지금의 몰도바는 무종교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몰도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신실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몰도바는 올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친유럽 여당과 친러시아 연합 야당의 서로를 비방하는 기사가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EU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몰도바에서는 2020년 12월에 있었던 직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전 선거에서 친러시아 정권이 무너지고 친유럽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 선거의 주역이 바로 젊은 세대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고, 결국 다수의 지지를 받은 지금의 친유럽 대통령과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몰도바의 EU 가입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EU 가입을 반대하는 친러시아 정당들은 연합하여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기보다, 몰도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곧 있을 한국 총선과 함께 몰도바 대선과 국민투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사역

평화교회에서 드려지는 러시아어 예배에는 12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선임 선교사님과 현지인 전도사님이 섬기시는데, 두 분 모두 곧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예배와 교회 행정을 섬길 현지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예비된 사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시니어 선교사님 부부가 몰도바에 오셨습니다. 동양의료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인데, 교회 내에서 의료팀으로 동역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니어 선교사님 부부가 몰도바에 오셨는데, 선교 훈련 코디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평화교회 안에서 더 활발한 연합 사역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드림센터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봄학기 한국어 수업은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러시아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한국어 수업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쓰여지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대사관을 통해 한글학교 신청을 했는데, 순조롭게 등록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센터 직원으로 있는 페오파니아 자매와 알렉산드라 자매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한국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박성은 선교사를 도와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은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한국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몰도바 학생들 3~4명과 몰도바 어린이 3~4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양들을 맡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4월 셋째 주일부터는 한국어·루마니아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국어 예배에 이어서 루마니아어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속히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립된 루마니아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자매인데, 그냥 센터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는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 그 자매와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은 한국문화의 날입니다. 한국어 수업과 상관 없이 누구든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자매와 같은 사람들도 부담없이 초청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늘 하는 고백이지만, 정말 저희는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며 감탄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파송교회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가족

얼마 전에는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인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요. 앞으로 매주 금요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두통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박성은 선교사의 손목 터널증후군도 새로 오신 선교사님의 침과 팔사 치료를 통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체력이 약해짐을 느낍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선배 선교사님께서 운동도 사역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자주 카톡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예배때 윤리와 린이는 악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청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린이는 예배 후에 청년들에게 악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 때 반주를 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린이는 4월에 고졸 검정고시가 있어서 혼자 한국에 다녀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고졸 검정고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인들을 위해 만든 공개 계정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누구든지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루마니아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240399928350638>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reamcenter.md/?igshid=OGQ5ZDc2ODk2ZA%3D%3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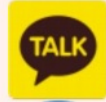
몰도바 소식지



<https://sites.google.com/view/182024-2/%ED%99%88>

love

몰도바 선교이야기



jinwoo7804



jinwoo7804@hanmail.net

안내

- 선교 소식지는 짝수 달 초에 발간됩니다. 다음 소식지는 6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 모든 선교 헌금은 GMS를 통해 연말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다음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woo7804/222580411764>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2. 몰도바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3. 협력 선교(기도와 물질) 동역자들이 많이 연결되어 선교 사역이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4. 몰도바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5. 드림센터 사역과 한국어 루마니아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6. 예비하신 파송교회를 속히 만나게 하시고, 파송교회와 함께 몰도바 부흥의 마중물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헌금계좌

KEB하나은행 920-982397-560 (예금주 : GMS황진우/박성은)
농협 352-1112-8119-03 (예금주 : 박성은)